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켜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0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5월 14일) 2018년 6월 27일 수요일



"생전예수재 복원은 우리가" 영산재 · 수륙재와 함께 불교 3대 재의식 중 하나인 생전예수재는 49재 등의 천도재와 달리 살아있을 당시에 죽은 뒤 지내게 될 재를 미리 치르는 재의식이다. 최근 생전예수재의 무형문화재 등록을 위한 노력이 여러 사찰서 이어지면서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 역시 6월 18일 충북 문화재위원 등을 초청해 '구인사 생전예수재의 복원과 보존을 위한 시연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천태종 스님들이 바라춤을 추며 생전예수재 의식을 하는 모습. 글=윤호섭 기자 · 사진제공=금강신문

불교 기부 新키워드 수혜자 중심

불교 기부단체 집행 변화와 과제

단체 모연 후 선정 · 지원
'니즈' 파악 중요성 높아져
"주는 입장서만 생각하면
일종의 '자선 갑질' 행위"

착한소원 · 나눔 장터 '눈길'
세심한 요구 파악 위해
수혜자 소통 네트워킹 필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내가 기부한 물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전달될까? 기부를 받는 사람은 이 물품을 필요로 할까?'

기부를 하면 한번쯤 드는 생각일 것이다. 그동안 일괄적으로 기부물품을 전달하는 기부자 중심의 기부집행이 수혜자 '니즈(needs)'를 먼저 파악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수혜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맞춤형 기부집행으로의 변화에 맞춰 불교계 기부 시스템 변화도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에서는 이미 수혜자 중심으로 기부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기부 수혜자가 필요한 식자재를 직접 구할 수 있는 푸드마켓이 유행하고 있다. 집행뿐만 아니라 모금단계까지 수혜자의 '니즈'를 먼저 설명하고, 수혜자의 사례를 보고 기부하는 프로그램도 나온 상태다. 심지어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등에 수혜자들이 직접 사연을 올리고 필요한 물품을 기부받기도 한다.

이런 변화는 불교계에서도 감지된다. 불교계 대표 공익법인인 아름다운동행은 2015년 3월부터 한부모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소 갖지 못하거나 이루지 못한 소원을 들어주는 '착한 소원' 위시박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또 올해 하반기 지역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불교가 쏜다, 아름다운 공양'(가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도 2017년 9월 서울시 거주 미혼모 150여 명을 초청해 아동용품을 미혼모들이 직접 선택해 받아갈 수 있도록 했으며, 불교여성개발원(원장 노숙령)도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개최한 제10회 나눔 바자회를 앞두고 이전 바자회와 달리 기획단계에서 수혜자 파악을 한 달간 진행해 한부모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이송 조계종 중앙신도회 주임은 "미혼모 지원 당시 가정에서 바로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점이 미혼모들의 호응을 얻었다"며 "이웃종교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품 기증 등이 적은 불교계는 기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혜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교계에서는 올해 초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연꽃향기가 이 같은 수혜자 중심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연꽃향기는 2016년부터 '행복한 나눔장터'를 개최하고 있다. 나눔장터는 기부를 받는 이들이 직접 생활용품을 골라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탈북이주여성을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여성들은 당일 행사장에 집결해 약 7만원 상당의 임시화폐를 발급받고, 나눔장터에서 필요한 것을 구입한다. 올해 나눔장터 행사는 6월 30일 수원사에서 탈북이주여성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여기서는 의류와 속옷, 화장용품, 목욕용품 등 28개 품목의 3000여 점이 전달된다.

이종철 연꽃향기 조합장은 "수혜자 중심으로의 변화는 수혜자들이 자칫 느끼기 쉬운 상대적 박탈감이나 자존감 상실 등을 막기 위한 노력도 포함되기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수혜자 중심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혜자와의 소통을 통한 요구 파악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춘 가치혼합경영연구소장은 "한 고아원에서 아이가 '한 달에 롯데월드를 네 번 갔다. 가기 싫다'고 일기를 써 논란이 인 바 있다. 자선에도 받는 이가 필요한 것을 주지 않고, 주는 입장에서만 주는 이른바 '자선 갑질'이 있다"며 "받는 이는 을의 입장이기에 내밀한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불교계 기부집행에서는 특히 이런 마음을 세심하게 헤아리는 지혜가 발휘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아름다운동행 유미란 팀장은 "기부 규모가 큰 불교계 단체일수록 직접 사업보다는 간접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에 수혜자와의 소통의 기회가 많지 않다"며 "허브 형식의 기관이 많은 상황에서 수혜자와 소통할 수 있는 일선기관과의 네트워킹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라졌던 원측 주석서 영인으로 돌아왔다

동국대 ABC사업단, 〈무량의경소〉 최초로 영인

원측 저술한 〈무량의경〉 주석서
日 사이쿄지서 발견… 국보 지정
불교고전 원본 영인사업 첫 성과

신라 원측(613~6%) 스님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 사이쿄지(西敎寺) 소장 〈무량의경소〉가 원문 그대로 영인됐다. 일본 국보인 〈무량의경소〉가 원문 영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단은 "일본 사이쿄지에서 소장돼 있는 원측 스님의 저술 〈무량의경소〉가 수년 간의 노력 끝에 처음으로 영인 · 간행됐다"고 6월 19일 밝혔다.

원측 스님이 편찬한 〈무량의경소〉는 법화삼부경 중 하나인 〈무량의경〉에 대한 주석서로는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문헌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라졌다가 최근 사이쿄지 소장돼 있는 중세 일본 사본 대장경에 포함된 〈무량의경소〉가 원측 저술임이 밝혀지면서 소재가 확인됐다.



일본 오츠시 사이쿄지에 소장된 원측 저술 〈무량의경소〉. 동국대 ABC사업단은 수년 간의 노력 끝에 처음으로 원본을 영인하는 성과를 냈다.

日승려, 연구위해 원측 저술 필사

사이쿄지에 소장된 〈무량의경소〉가 원측 스님의 저술일 것이라는 추정은 이미 1960년대에 일본의 천태 학자인 다이라 료쇼(平了照) 씨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후 일본 유식학 연구자인 기츠가와 도모아키(橘川智昭) 씨가 그 주장을 보다 심화시켜 지난 2008년 5월 한국학계에 보고하면서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무량경의소〉는 일본 천태종 승려인 린쇼가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두 학자들의 발표를 통해 사이쿄지의 〈무량의경소〉가 원측 스님의 저술이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사이쿄지의 〈무량의경소〉는 895년 린쇼 스님과 그 제자들이 필사한 책으로 원측 스님이 찬술한 때로부터 약 200여 년 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가장 오래된 필사본일 뿐만 아니라 거의 유일한 사본으로 확인된다.

日훈점 연구 중요자료

린쇼 스님은 〈무량의경소〉를 필사하였을 뿐 아니라 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붉은 색으로 교정을 하고 특히 해석을 명확하게 해야 할 곳에는 역시 붉은 색의 훈점(訓點, 한문 문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붙인 점으로 된 부호)을 붙였다.

린쇼 스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책의 내용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 붙인 이 훈점은 일본의 훈점 관련 자료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사례 중 하나로서, 일본 훈점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무량의경소〉는 1937년 일본 국보로 지정됐으며, 최근 안전한 보존과 관리를 위해 오츠시 역사박물관에 관리를 위탁했다. 이후 이 책은 일반인은 물론 연구자들에게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국내 학자 노력 끝에 영인 결실

이런 상황 속에서 동국대 ABC사업단이 〈무량의경소〉의 영인을 할 수 있던 것은 최연식 동국대 사학과 교수(ABC사업단 부단장)의 역할이 크다. 최 교수는 2008년 학술회의 현장에서 기츠카와 씨의 발표를 듣고 지속적으로 〈무량의경소〉에 관심을 갖게 됐다.

지난 2016년 동국대 ABC사업단에 참여하게 된 최 교수는 해외에 전해진 한국 불교고전의 원본을 영인 · 간행하는 사업을 제안했다. 정승석 단장(불교학술원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도왔고, 〈무량의경소〉 영인본 간행 사업이 추진돼 올해 결실을 맺게 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측은 "일본의 국보를 한국 연구기관에서 영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업"이라며 "영인본 간행 이후에 사진 자료가 무작위로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처음부터 일본의 태도는 냉랭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번에 발행한 원측 스님 저술 〈무량의경소〉 영인본은 관련 분야의 전문 연구자는 물론 관심 있는 불교학자들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